

아연병과이십여합을교봉하야연장무양정을버히고연군승천을죽이니극신이되호
호야급히대군을지축하야일이으니조병이임의물너간지라겨셔를보내여명일또싸호
조호거늘방난이허락호고잇는날방진이상디홀시방난이극신으로더부러옛날천
호연크게불너왕극신이머리를엿는지잇스면승천금을유라라하니극신이되호하야
주소원으내다라치라하니조군중에서악승악학이내다르니연군이점々되호거늘
극신이되군을모라싸호니방난이또호호조군을모라크게일장을식살하디연군이만히
상호얏더라날이저물미각々도라가더니조군에서연군에글을보니호얏스되되슈장
피목이군스를잇그려독항을엄습호고그디의뒤홀흔호리니쌀니도라가라내뵈날교
정이아니면이말을아니호리라호얏더라주소원이극신다려왕방난에말을아니미
지못호리니만일피목이오면우리가비와등으로도적을바드리니엇지호리요극신
이쇼활앗가는내군심을진정호노라거죽말이라호얏거니와가하아니치못호리라호
고만이군중의절령호야영체를바리고밤으로군스를거두어도라가며극신이뒤홀
신타니방난이연군이물너감을담지호고군스를제길노난화싸라가용전하에이르
니담리보호되되주군이온다호거늘극신이대경왕방난이과연나를죽이지아니호도
다호고감히북으로가지못호고등으로향호야요양으로닷더니방난이죽조가호호하
에서크게연군을파호니극신이탄알내무슴낫초로조라에잡히여가리요호고스스

리목은티쳐로가니라
초설방난이연군을파호후승제호를타덜국을합중호야진노라를도모호라호니제노
라는진노라에붓쫓고한과위외최각々날닌군스를말호니만흔조는오만이요적은조
는이삼만이라호가지로출신군왕홀노상장을삼아진노라홀칠시왕홀왕진노라홀여
러번치되다합과관이구더공을일우지못호얏스니이번에는포판으로행호야하주를
지노위달음엄습호고동관을엿보면병법에일은바그뜻호지아닌티노미라호고군스
를다섯길로난화위를쳐이괴지못호니이씨에전승상려불위군스를오로로난화동
문밖오십리에진차고왕전이불위다려왈다섯노라이정병을거노려와서성을파쳐
못호니그능호미업스를가하알지라삼진병은진노라히갓가이잇셔싸홈을너히호얏
거니와초노라는남방에잇서길이멀고장의죽은후삼십여년을셔로치지아였스니
우리오영의정병을싸초군을치면초군이지팅치못호야다라날거시니남은노라는스
스로문혀지리이다불위그러히녀어가만이약속을정호얏더니리신이량최더디음
을독량아장감회를버히려호다가중장이권호야다만등을빅여장을치니감회한호야
밤에초군이와왕전에싸를일으니출신군이되정호야각영에등호고조호니밋쳐괴별
못호고죽지에치를싸쳐오심리를물너가비로소완々이행호니진군이닐으리초

이 위잇는 지라 의가 루설을 줄 알되 그 저도라 가가 서운하야 초병을 처나 초병이 견고
하야 능히 드러가 지 못하 고 일야를 요란하 다 가 하 놀이 밝은 씨에 연(한) 위삼국이 와 구
하니 왕전 이 군스를 거 두어 잔 지라 방난 이 탄 왕이 후에 는 합동에 일이 쉬오 리로 다 하 고 군스를
는 저 군스를 거 두어 잔 지라 방난 이 탄 왕이 후에 는 합동에 일이 쉬오 리로 다 하 고 군스를
거 두어 도라 가다

저설 출신 군이 나 라히도라 가니 스국이 각 스신을 보되 여와 초나라 리 등 약장이 되야
엇지 고 처아 니 코몬 저도 라 오 노하 니 초왕이 왕홀을 썩 지 존 되 홀이 붓그 리고 두려 위하
더니 위나라 스람 주영은 식외 이라 출신 군다 려 왈 스람이 다 초나라 이 강국으로 서 군에
게 밋쳐 약하 았다 하 되 나 는 홀 노그 러 처아 난 줄 아 느 니 선군 씨에 는 진나라 와 초나라
스이가 심히 멀더 니 이제 는 낭취 다 진나라 에 드러 가 고 스이 에 막혀 나 라히 점 스싸 홀 씨
서 더 경이 갓 오 니 엇지 초왕을 권하 야 도움을 슈춘으로 을 마가 게 아 니 하 느 노싸 히 머
러 지고 회속을 갈여 죽 회기가 나 흐리 이다 왕홀이 그 말을 좃츠 초왕 게 말하 야 슈춘으로
옴가 니 영도 로 붓터 네 번 도움을 옴겨 더 라

저설 초왕이 지 위호 지 오 리 되 티 저 업더 니 조나라 스람 려 왈 은 출신 군에 문인이 요 그 누
의로 초왕 게 드러 마 음이 잇스 나 조식을 낮치 못하 면 총을 일 홀가 하 야 게 고를 싱각 고 문
저 출신 군 게 드러 다 형이 조식을 비이 거 든 다 시 초왕 게 드러 조식을 나 하 후 일에 초왕이
되 면 곳나 에 성질이 라 하 고 이에 누의 조식 잇스 물 조랑 하 고 제왕이 구하 야 다 려 가 란 다

하 니 출신 군이 듯고 불너 본즉 과 언식 티 절승 호지 라 인하야 머물너 든 지 석 달에 문득 조
식을 비거 늘리 왈이 스사로 이그 누의 다 려 일너 왈 출신 군다 려 조식 빈 말을 하 고 초왕 게
드 리기 를 청하 라 하 니 출신 군이 그 말을 듯고 왈 슬피 잇는 부인이 남조 보다 낫다 하 미 그
터를 일음 이라 하 고 이튼 날 리원을 불너 의논 하 고 초왕 게 드러 가 고 왈 신의 문인 리원에
누의 조식이 잇고 상지 일으기를 조식을 잘 나 흐리 라 하 느 이다 초왕이 죽 시 리언을 다 려
궁에 드러 가 리언이 야 침을 잘하 기로 총이 잇고 산월이 되 티 쌍남을 칭하 니 초왕이 깃거
하를 마지 아 니 하야 드 터 여 리원으 로 황후를 봉하 고 몬저 난 아 히는 일 홀을 한 이라 하 고
터조를 삼고 츠즈는 일 홀을 유라 하 고 리원으 로 국구를 삼아 총히 하 미 출신 군으 로 할가
지러 라 리원에 위인이 잔 스하야 출신 군 밋들기를 더 옥부 조러 나 하 나 실노 쟈 려 하 니
초왕이 오리 병이 드러 낫지 아 니 하 니 리원이 그 누의 조식 빈 일을 오직 출신 군이 알물
혐의 하야 죽여 업시 코조주의 를 정하 고 가 만이 용스를 구하 야 문하 에 두고 그 록을 후히
하 니 주영이 듯고 의심하 야 왈 리원이 용스를 만히 기 르 문 출신 군의 연과 로 다 하 고 이에
출신 군을 보 고 리원을 몬저 제어 할도 리를 일은 디 출신 군이 대 소 왈 리원은 본디 나 약하
고 또 나 를 삼가 섬기 니 엇지 그런 뜻이 잇스 리요 주영 왈 군이 금일에 니 말을 듯지 아 니
라 가 누우 처리 이다 출신 군 왈 죽하 는 아 죽물너 잇스 라 니 살피 보아 죽하 를 쓸곳이 잇스
면 죽시 청하 리 라 주영이 물너 가 삼 일을 기다 리 디 동정이 업거 늘너 가지 아 니 면 해장 찻
치 리로 다 하 고 오호 로 다 라 나 니 라 주영이 잔 후 심철 일에 초왕이 흥하 거 늘 리원이

저궁중에 드러가상스를받치아니하고용스를궁문안에티북후스함을보너여황
을에게보하니홀이대경하야빈익에게도세하지아니코슈티를지축하야드러가니궁
은좌우에서용시너다라왕홀을죽인후에발상하고티즈를세우니이름은왕이라나히
개으룩세너리원이스스로상국이되고출신군에게레를다멸하니라

지설려불위오국병이진나라천일을분하야갑고즈홀시글오티세를유창호즈는조나
라장슈방난이라하고이에몽오와장당으로군소오만을거너러조나라를치라하고스
일후에다시장안군성교와장군번오기로하야금소오만을거너러후왕을삼으니빈익
이불위다려문왕장안군이니히절머장슈지목이아니라호티불위미소왕너히알비아
니라호티라몽오는할곡관으로나아가상당으로죽츠도산에결치하고장안군은유싸
히진쳤더니조장방난이호첩으로더브러십만군을거너리고도산을바라고을서호첩
이몬저이만군을넋그러요산에일으니몬저진병만인이웅거하얏거늘호첩이죽쳐을
나가진군을쫓고산두에하쳐하얏더니진장몽의장당으로이만병을거너러산을달
토거늘방난에대군은산아리잇고호첩은산두에잇쳐홍괴를들너장당이동으로가면
동을가르치고셔호로가면셔호로가르치너조군이괴를싸라에우티장당이능히버셔
나지못하니몽오에군서일으러도산티치로도라가스즈를보너여장안군에후군을
지축하니장안군성교의나히십칠체에군무를아지못하는지라번오기를불너의논하
니오피본티러불위의첩을드리고너라를도적할일을미워하는지라좌우를불너의논하

안군다려전일스를제々이말하고왕금왕은선대의글육이아니요오직군의적사라
문신히병권을군에게부침이조흔뜻이아니라일조의일이루설하면군이금왕으로
더브러힐난홀가져어하야것츠로총을뵈이느실은군을밧그로너여보너는뜻이서
요문신히궁에출입하야티후로더브러음난하며부쳐와부지할구혈에모혀잇고쓰리
는즈는홀노군이라마일몽오에군서피하면장츠이일을빙즈하야군의죄를삼으라하
느니경흔죽관작을사할거시요중흔죽류하리너영씨에너라이화하야려써될줄
을너라사람이아느니이제불가불게교를아니치못하리이다장안군왕죽하에밝히말
하미아니면너아지못하리니이제게교컨티엇저하리요번오괴왕이제몽오에군서조
느라에곤흔비되여급하도라가지못하리니군이슈하에중병을거너러즈미만일겨셔
를전하야음인에죄를베쿨고간스하를밝히면군민이취아니적즈를밧드러스직을류
하고즈아니하리요장안군이분연하야관을안고왕너장뒤죽으며죽엇지장스직하는
사람에어들에게글술하리요오죽장군은잘도모하라번오괴이에몽오에스즈에게거
죽말하야죽시군스를유겨가리라하고겨문을호하니하얏스되

장안군성교는중의국민에게고하노라너라를전하는의논적등에놀호미되고중스
를업치는악은가만흔써심하미되느니문신히려불위는양저또장사하는사람으로
함양에왕괴를엿보너금정이실노선군의혈속이아니라불위의아들이아니라처음
에주식빈첩으로공교히선군을후게하고이어잔사이느은이히로혈속인체하미로

다 두니군의 슈호지 못함을 엿지 다일을 비리요 삼리에 뒤권을 누능히 막을고 조정이
엇지 참임군이 가임의 영씨가 려가 로 밧고 엿도 다 놓히거 죽아 비위에 거 호야스니 맛
츄니 신하로써 님군을 찬역하리로 다 사직이 장차 위티하리 귀신과 사람이 다 노하는
도다 피적되얏기로 하늘이 버히시물 맞치고 하야 갑슈와 잔티로의 성을 시려 빗출
너는 도다 조손과 신서는 선제에 덕을 생각하야 호가 지로 달닐지어 다 격문이 일은는
바에 그다 음아 거마를기 다리고 썩들림하야 시종이 번치 말노 하얏더라

격문이 사면에 전하니 진노라 사름이 만히려 불위에 첩드린 일을 뜻렷더니 격문을보고
참말노 미더 비록 문신군에 위임을 두려 짜라 서지 못하노 판망하는 뜻은 업지 아니라
번오기 유짜 군읍에 잇는 정장을 다 썩아 군사를 삼고 장조와 호관을 처항 북밧드니 병세
크게 썩치더라 장당이 장안군에 반함을 알고 성야로 함양에 드러가 고번하니 진왕정이
격문을고 되로 하야 상부러 불위를 분나의 논하니 불위장안군은 허어려이러
케 할 줄몰을 거시요 이는 다 번오기가 혼비라 번오기가 용밧은 잇스노 썩가 업스니 군사
를 밧호면 즉시 소멸하리니 과려치 말노 소셔하 고왕전으로 뒤장을 삼고 환기왕분으로
좌우 선봉을 삼아 군사 십만을 거노려 장안군을 치라 하다

지설문의 방난으로 더 브러상지 하다가 장안군이 반함을 뜻고 되 경왕네 장안군으로 더
브러 할가 자로 조노라 을 치다가 공이 업고 장안군이 반하니 엿지 죄업스리요 창을 두
루허역적을 령정하야 스스로 면죄하리라 호고 전령하야 반사 할시군마를 세티에 난
호고 친히 뒤호사 허완사 이행하더니 방난이 이소식을 뜻고 정병삼만을 생호첩으로 하
야 금사 이길노 좃치티 향산에 미복하얏다가 몽의 친히 뒤호를 싣을거시니 진병이 다 지닌
후에 맛당이 뒤호로치면 온전이 이과리라 하니 호첩이 청령하 고가 더니 과연 몽오의
군사를 만노니 호첩이 마져 교전 할시 방난이 뒤호로 쓰르니 진병이 싣을마음이 업서크
게 궤산하는 지라 몽의 몸이 중상하얏스되 힘써 싣을시 활을 다리여 방난에 갈빗대를 맞
치더니 조군이 여러 접을에 우고 어 드러니 쏘니 몽의 향산아리셔 죽으니라 방난이 이과
물어더 도라가는 전창이 말하야 죽으니라

지설장당왕전등에 군식 누싸히 일으니 장안군이 크게 두려하거늘 번오기 왕왕 지이세
는 호랑이를 탄형제니 엿지 드시노리 리요고이에 성하에 진세를 버티고기 드리더니
왕전이 또 호진치고 번오기 드려 왈노라 이네게 무엇슬져 바렷판티 장안군을 썩여 모
역을 짓노노 번오기 왕진정은 려불위에 잔사이는은 들인 줄누물으리요 너여러티를
국을 밧앗스니 엿지 참아 영씨에 혈식이려 씨의 개아이를 보리요 장안군은 선왕에 골혈
인고로 밧드노니 장군도 선왕의 봉사를 생각하야 혼가지로 합동하야 함양에 드러가 음
인을 버히고 위주를 업시하야 혼가지로 장안군을 세우면 봉후에 위를 일치아나하리라
왕전 왈티 휘잉티 혼지 열달에 금왕을 니앗거늘 네비방하는 말을 지어 모역하 고공교
호말을 꾸며 중심을 현혹계하니 너를 잡아 죽임을 만단에 티리라 번오기 되로 하야 눈
부름쓰고 창을 드러바로 진군에 드러가 좌우 총돌하야 무인디 경로치 회회하니 진병이

만히 상흔지라 이날 느즈 후에 군을 거두어 왕전이 산기산에 진치고 혼계교를 성각고 군
중에 전령왕 뒤장안군으로 더브러 가는 지 잇느뇨 일장이 고왈 소장이 일즉 장안군에 문
하국이 되얏느이다 하니 이는 말장양단해라 왕전왕내 글흔봉을 닷가 줄거니 비장
안군에 가일즉이 치준하기를 원하야 죽기를 취하지 말느니라 양달해왈 소장이 엇지 성
에 드러가리잇고 왕전왕교봉하드가 군사들 거들썩에 내적군에 모양을 하고 쓰라 성중
에 드러가 잇드가드만 성치를 급히 하거든 장안군을 가보면 반드시 변함이 잇스리라
하고 환괴로 장조성을 치라 하고 왕분으로 관성을 치라 하고 왕전은 유싸흔치니 번오괴
성문을 낼고느와 싸호거늘 왕전이 거죽일진을 피하고 심리를 물너가 북룡산에 진치니
라 번오괴이 괴고 성으로 드러갈썩에 양단해섯겨 드러가니 본디 그곳스름이라 스스로
천척드리잇셔사로 만느미 편하게 잇게 하더라

추설왕전이 군사를 심리에 물너김히히즈를 파고 진을 곳게 하며는 싸호지 아니하고 군
사이만을 발하야 환괴와 왕분을 도와 공을 일우라 하고 번오괴연일싸호물느와 응성치
아니하니 번오괴와 왕전으로 겁흔드하고 군사를 화장초와 호군을 구완하라 하더니 람
리보하되 두곳이 진병에 린비되엿드하거늘 양단해밤에 장안군에게 드러가 괴밀서
잇노라 하고 보고기를 청흔디 장안군이 옛날문하귀을 보고 불너드리거늘 양단해좌우물
니치기를 청하교왈 진느라히강하문장군에 아시는 비라 비록륙국이 라도 능히이괴
지못하거든 의로운 성으로 써결우려하니 반드시 요행함이 업스리이디 장안군왕번오
괴말하되 금왕이 선왕에느은비아니라 하고느를 인도하야 일을 할미요느에 본심
이 아니로드양단해왕번오괴필부지용을 밋고 요형을 바라드가겨셔를 각군에 전하얏
스디하느도 응하느니 업고 왕장군이 치기를 급히하니 성이 파하면 장군이 엇지 써보전
하랴하느뇨 장안군왕내연느르이느조느르로가 제후를 합동하랴하느니 죽하는 엿더
타하느뇨 단해왕합동에 일이 합하드가도로 풀너기 쉬우너가 하일우지 못하미 반드하
고륙국이 드진느라를 두려하니 장군에 잇느라에 일키저스를 보내여도 반드사 장군
을 결박하야 드러니 오히려 살기를 바라리잇가 장안군왕죽하는느를 위하야 계교를 석
각하랴맛당하엿더케하리요 단해왕장군이 밋지아닐가 하야 글을 보내디드하고 봉
흔글을 내여노흐니 하얏스되

군이 귀가공조로 잇지증험업는 말을 듯고 불측흔일을 행하야 스스로 화를 취하니 엇
지이셔지아니하리요 람을 슈창흔즈는 번오괴니군이 능히그머리를 버혀들니고 손
을 못거죄를 항복하면되맛당히진왕게알외여군을 용서케하리니군이 만일지이미
결하면 뒤웃쳐도 밋지 못하리라 하얏더라

장안군이 잔필에 눈물을 흘너왕변장은 총적지인이니 엇지 참아버히리요 단해왕왕군
은일은바부인지심이로다신의 말을 좃지아니면 하직고깃느이다 장안군왕죽하는
잠잠머물느다시의논하리라하더니 잇튼날 번오괴장안군을와보고 왕진병이세티하
야보전치 못하깃스니하가지로연조지경으로가스이다 장안군왕나의 종족이다 할양

에잇거늘라국으로가면엇지절거바드리요변오귀왈각국이다진느라스오나물오귀
로와하니엇지드리지아니하리요하고여러번저축하다가진병이남문밖게서싸움을
드든다하니변오귀나가싸호거늘양단해장안군파성에을느싸움을구경하니진병이
성하니오귀당치못하고성으로도라와문을열느하거늘단해디성왕장안군이임의
항복하얏스니장군은스스로구쳐하르고사미안호로서항서쓴거늘녀연즈니좌
위다단해에치척이라장안군이능히주장치못하고다말을기만하거늘변오귀몸을씨
여연조로다라는다왕전이성중에드러가장안군을공판에가도고신승을보너연왕
게알외니진왕이명하야장안군파죽천군스를다버히고성중벽성을다입조로음기고
변오귀를잡아드리는지면오성을봉호리라하니장안군이죽기를당하티스스로목
미여죽으니라시々に에진왕에느히임의장성하미신장이팔척오촌이요영특하기비
상하고성질이충명하야미스를스스로주장하고티후와려불위에게말미암지아니터
라임의장안군에난을정하고몽오의원슈갑기를싱각하니강선군최태왈조느라이연
느라로티々원슈니셔로붓침이그본심이아니라신이청컨디연왕을달너여불모를
드리고신하로일카러조느라형제를외로게호후에조느라를쳐하잔게싸늘넙히면이
는큰공이니이다진왕이그말을죽츠니최택이연왕을보고달내여왈연과조는다만동
의느라이어늘호변싸화를복이죽고두번싸화극신이망하티대왕이두번피호원슈
를잇고조느라로일을함게하야진느라를결으니이긴즉리호거슨조느라로가고이귀

지못호즉히로오문연느라이당하니신이연느라를위하야슬허하느이다연왕와과이
이엇지조느라에감암하리요힘이밋지못함미로라최태왈이제진왕이오국에합동호
원슈를갑호려하기로신이말하기를연과도는티々로원슈니그죽치마부득이하미라
하얏스오니대왕이만일티조로진느라에불모하고진느라티신하느홀청하야연느
라정승을삼은죽연과진에스피마교철호호리니량국에힘을합호죽조나라원슈를설
치기어렵지아니하리이다연왕이그말을죽츠티조단으로진느라에불모를하고티신
호스름을청하야연느라정승을숨으라하너려불위장당을보너려하야티스다려점치
려하니크게길호지라장당을보내려호죽병을일캣고일지아니하거늘려불위천히
가셔청호티장당이스양왈신이여러번조느라를쳤스니연느라가는길이조느라를지
난죽가지못하느이다불위저삼강권하되죽지야니커늘불위부중에도라와당상에안
즈민々하더니문하직에감라라하는지잇스니감무의손지라느히십이제라라불위
압히느아가길오티군이심중의무슴일이잇느니잇가불위왈어린호히무어슬알니요
감라왈문하에선비를귀케너기는바는능히군을위하야근심을난호미라군이일이
잇스디들니지아니시면비록충성을본받고조하야도홀길이업느이다불위노즐왈
가게하야々々々々거듬말을호며또일오티너가친히가도듯지아니커늘네어린아
히엇지능히등케하리요감라왈옛날항탁은철세에도공조에스승이되얏스니이제신
은심이제오니오년이더하온지라신이々를본받지못하거든부지조미닛지아니커늘

엇지런하선비를경이허너기사느니잇고불위그말을괴이하너여얼골을긋쳐스레알
네능히장당으로동하게하면공경에위로써더으리라감라흔연이장당에깨가니당이
문신후에익인줄아나나히어리물경히너여문왕유지엇지오노감라왕군에게조상호
라오노라장당왕무슴일을조상호느노감라왕군에공이무안군과엇더호노장당왕무
안군을엇지당호리요감라왕응후에용권이문신후와엇더호노장당왕응후문신후
만못호니라감라왕옛날에응휘무안군으로조느라를치라호야즐겨듯지아니커늘응
휘흔번노호미무안군을죽엿스니이제문신휘스스로와서군다려연느라에가정승노
릇호라는것을군이질겨듯지아니호니문신휘능히군을용납호리요군에죽을괴약이
머지아니를조상호노라장당이송연왕유조는나를구호라호고인호야감라로불위에
게죄를청호고죽일에형장을쳐려가라호거늘감라려불위다려왕장당이신에말을듯
고부득이호야연느라로가오나조느라를두리는마음이업지아니호니신을슈리오
승만빌니시면몬져가조느라에보호리이다려불위임의그지조를아랏는지라이에드
러가진왕게말호티진왕이감라를불너보니진장이게오오척이요미목이청슈호야그
림갓거늘진왕이이에깃거호야문왕유지조를보고엇더케말호라호느노감라티왕
그두리고깃그를살펴말이것츠면그티로싸라두루허리니미리정치못호느이다진왕
슈리십승과복종벽여인을쥬어조느라에스신보너니조왕이임의연진이통호불드러
두느라이로를철가두리더니홀연진느라스지음을듯고이십리밖게나아가마조본죽

감라에나히어란지라암스이괴득호물일크고문왕향년에슴천을통호지또호감씨
니선성과엇지되느노감라왕신에조부니이다조왕왕선성에나히몇치노티왕십이세
니이다조왕왕진느라조정에나히만흔저업느노감라왕진왕에스름쓰미각각그소임
을맛기느니나히만흔조는큰일을맛기고나히적은조는적은일을맛기는고로신을조
느라에보내미니이다조왕이문왕선성이폐국에오문무슴일이노감라왕대왕이연히
조단이진나라에볼모로드러감을드르시니잇가조왕왕드러노라감라왕연티진느
라에볼모호문진느라를속이지아니미니진과연이셔로속이지아니호는티조느라
이위티호리이다조왕왕이무슴뜻이노감라왕호가지로조느라를쳐하간에싸홀버히
고조호미니이다대왕이몬져진느라에오성을드러하잔을널니게호말호지못호니신
이과군씨말호야장당의연느라보내물쫓치고조느라로화천케호리니감호조느라로
약호연느라를치면그어드미오성에비호리잇고조왕이대열호야감라를황금벽일과
벽벽이쌍을주고오성디도를붓쳐도라보내거늘진왕이티회왕하간에싸홀유조로말
미암아어드니유조에지해가그몸보다크도다호고장당을보내지아니호니조왕이
연나라를쳐슴십여성을취호야십일성을진나라를주거늘진왕이감라를봉호야상경
을슴앗더니홀연호로밤에감리움을어드미북은웃님은아전이하늘부작을가지고와
말호되상에명의로부르신다호더니인호야병업시죽으나라

다설려불위선괴가조화교구를살호는고로장양후에게득총호야궁금에출입호야괴

이 업더니 진왕이나 히장성하미영총이 파인호물보고 두려운마음이 있스니 티후의
음심이 뜻치아니 호야 불시에 감천궁으로 불너 드리니 불위일조에 탈호면화를 면치
못할가 호야 다른사람으로 티신코 호야 광구호티후에 마음에 합호스 사람을 엇지 못
호더니 시정무리 티의 요티란 제음난호 죄를 범호니 요티의 신기가 요키로 유명호야 음
호계집이 닷도아 섬기니 진나라 풍속에 호실업는 사람을 별명호야 독이라 호미인호야
요독이라 부르더라 불위요독에 죄를 스호고 부중에 머물니가인을 삼앗더니 풍속에
미년 농스 호다가 일을 마친 후에 나라 호티서 삼일을 노리호야 호가 지지 조라도아는
티로 시험호며 즐기는 법이라 불위 오동남그로 슈티 박휘를 믿들고 요독으로 호야
금그신으로 슈티 박휘 호온티 씨이니 박휘가 구을 티신은 상호지 안닌는 지라 저지스 람
이다대 소호더라 티휘 초언을 듯고 호만 불위 다려물으며 호선호는 뜻이 있거늘 불위
알티 휘그스 람을 보고 호실 진티 내다려 오리이다 티후 호고 답지아니 호다가 랑구
에 왈군이 회동에 말이로다 외인이 엇지 안히 드리오리요 불위 왕신이 호계 고잇스니
그넷 죄를 발자 호야 불알 썩히는 형벌을 호고 중되로써 히형호는 뇌조의 계 셴물 호야
거 죽형벌을 호앗다 호고 티판노르 슬식 허궁의 드리오면 가히 장구히 지티리이다 티후
티 열호야 티금을 주거늘 불위 요독 다려이 일을 일으니 요독이 티 회호더라 불위 파연
그계 고티로 호야 거 죽요독에 신을 버혔다 호고 당나 귀신을 돌너 호보는 지다 요독에 신
이크다 호야 놀나더라 요독이 호에 슈염을 씌고 환조의 모양이 티야 드러가 티후를 시험

호니 티후티 열상패 호야 불위보다 심비는 더호더라 불위 일노써 버셔 호티 후요독으
로더 부러 동쳐 호기를 부호호 처호더니 조식을 비티 후히 복호썩에 숨기지 못호지라
거 죽형을 일컷고 요독으로 호야 금복조에 계금을 주고 궁중에 스물이 있스니 서방이 빅
리 밧게 피호야 병이나 으리라 호야 달나 호야 진왕게 들너 호진왕이 있셔 못불의
에 일을 의심호다가 저기 먼나가 잇셔 그리 왕호물 쓴코 호호야 곧 오티 호주 호궁으로 가
라호나 티후다 호이 나 호요독으로 슈티를 호치호야 호주궁에 가잇스니 이궁일홈은 티
평궁이라 티후요독으로 더욱 천밀호야 랑년스이에 연호야 두아 들을너 하밀실을 믿들
고기르며 티후요독 다려가 만이 언약호되 후일왕이 호호거든 그아 들노 호스를 숨으리
라호더라 요독이 왕을 티신호야 티후를 피시는 공이 잇다 호고 짜호 불호기를 청호니 진
왕이 티후의 명을 바다 요독으로 장신을 호봉호고 산양 짜호 주니 요독에 가동이 수천인
이요 빈키이 호호 슈천인이라 벼살을 구호는 조와 견제를 못호는 지부지기 쉬라그런귀
호미문신 후보다 더호더라 진나라 티덕공씨에 빅제를 제스호야 호주에런데 당을 세우
고 목공씨에 부부인 스당을 지어 호마다 데스호는 절제라 진왕이 미년에 고스호는 씨로
호주에 일으리 티후게 문호호니 진왕이 머무는 궁은 일홈이 기년궁이라 이씨 진왕이
호주에 거동호야 티후게 회오니 나히이 십이 세 호호려 관례를 아니 호지라 티덕공씨
에서 관례를 호고 티덕관을 일노리를 호고 티후 호호진왕으로 티정궁에서 잔치
호시이 티요독 호복이 파호야 회를 날호호 켜라 여려귀 책제신으로더 부러 술먹으며

비독장기로 놀더니 대소일에 요독 중되 부안설 노더 부러 장의를 두어 여러 판을 지고 술
이 취하야 승부를 업시 하노라 안설이 또 호 취호지라 듯지 아니 거늘 요독이 달녀 드러
안설에 셈을 치니 안설이 또 호 요독을 쥐여 질너 판 뜻히 너 머진지라 요독이 대로 하야 눈
을 부릅뜨고 왈 나는 금왕의 슈양아 비어 늘에 엿지 감히 날과 결을 싸안설이 드러 닷더
니 맛찰진왕이 티후궁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마 조처사히 업티여 고두하 고을며 죽
기를 청하니 진왕은 괴미를 아는지라 일언을 아 니코 좌우로 안설을 붓드러 기년궁으로
다려가 연고를 물으니 안설이 일오티 요독이 스스로던하에 슈양아 비로라 하던 말과
요독이 근본이 판이 아니요 티후를 피셔 두아 들서 지나 혼말을 일사히 알외니 진왕이 대
로 하야 마만이 환기를 불너 군사로 하야 금요독을 낫스려 오라 하얏더니 너스 비살하는
스와 좌의 비살하는 같이 본디 티후와 요독에 금전을 만히 바다그당이 되었던지라 일이
금항을 알고 요독의 계비보하니 요독이 임의 술이 서여 크게 밤의 티정궁에 드러가 티후
를 보고 하소연하되 환기의 군치오 기전에 궁중시 위군을 발하야 금왕을 죽이고 우리
부뷔보전하노라 티후 왕궁중시 위군이 엿지 줄겨어 영을 드르리 요독을 알티후의 유
서로 거 죽옥보를 믿드러 기년궁에 도적이 드러다 하고 시 위군 병을 부리면 영을 조초리
이다 티후 죽이어 저러 위옥체를 죽시내여 주거늘 요독이 사에서 위군과 빈익을 거느
리고 너스스와 좌의 같이 노더 브러기년궁에 우고 잡나하다가 일을 일우지 못하 고다 잡
히어 요독을 슈리에 썬져 죽이고 그 삼족을 멸호 후진왕이 대정궁에 드러가 요독에 나혼

아들을 초져너 여비자로 속에너 허박살하 고티후는 영양궁에 안치하 고군스삼빅인으
로 직회개하 고 할양으로 도라오니 상부러 불위저를 죄줄가 두려 거 죽병을 일코고 나와
되오지 아니 거늘 진왕이 또 호 버히라 하니 군신이 불위로 더 브러 관스 제만하 그 선왕을
붓드러 세운공을 닷호아 잔하미왕이 버히저 아니코다 만정승인 만거 두니라 이히스일
에 하늘이 크게 처위셔 리와 눈이 나리니 빅성이 만히어 러죽거늘 민간에서 의논이 분々
하되 티왕이 티후를 귀양보너 기로이런 지앙이 있다 하니 대부진총이 드러가 잔하야 왈
던하에 어미 업는 조식되는 이 업스오니 티후를 마조 할양으로 도라와 야런 변을 두루
혀리라 하니 진왕이 대로 하야 충에 옷을 벗겨 죄질너 우히제우고 쓰려 죽여 그 시신을 곁
하에 길고 방부쳐 왈다 시 티후 일노 썬잔하는 지잇스면 이와 조처하리 라하더라

초설진나라 티부진총이 죽은 후에 또 호 잔하는 지잇스면 이와 조처하리 라하더라
죽인 지이 심철인이라라 죽임을 싸하모더이가 되니 제왕과 조왕이 진나라에 왔다 가이
를 보고 탄식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이 때 창슈스 탐모 최할양에 와 있다 가이 일을 알고 곁
하에 나아가 죽임에 업티여 크게 불너 왈 신은 제나라스 탐모 최라티 왕게 잔호 말이 있다
하거늘 진왕이 너시로 하야 금나아가 무슬 말인고 무르라 하니 너시나와 들으티그티 잔
말이 티후에 잔섭하미 업느냐 모 최왕이 정히 일을 위하노라 너시그티로 회보호티
진왕 왈 네나아가 총장 사헌거슬 마르치라 너시또 나가이 뜻을 하령하니 모 최왕 신은 들
니 하늘에도 이 심판 쉬잇셔 썬하 나려 티성호 죽바른스 탐이 된다 하니 너그슈를 취호

조항는이다항거늘너시또드러가그티로알완티진왕이티로알광휘간히너령을번
항는요가마에살마그시신도업시항면엇지이십팔인을치오리요항고갈을안고는섭
할거스리며입에침을흘니고노피말사항야빨니광부를잡아드리라항니너시나가모
초를부른티모최짐중웅크르며천사기르니너지축홀죽모최왕내티왕을뵈오면
꽃죽을스람아니잠간스이나능츄미무삼방히되리요너시불상이너겨셔붓드러드러
가미모최계하에서고두지빅항고츄왕신은드르니살미잇는조는그죽기를휘항지아
니항고나라를둔조는그망흔단말을휘치앗넛는다항니망항는말을휘항면가히보전
치못항고죽는말을휘항면실어금술지못한다항오니스성파존망은명츄의궁구항실
바인티아아드고조항시니잇고진왕이얼골빛쳐기풀너문왕시험항야말항라모
최티알충신은아첨항는말을나아오지아니항고명츄는광휘홀힐실을뵈지아니항느
니님군이피항잇는거슬말항지아니항면이는신히님군을저바리미요신히충성된말
이잇는거슬뜻지아니항면이는님군이신하를저바리미라대왕이하늘을거스리는피
항이잇스되스스로알지못항시고미신이귀거스리는충언이잇스되대왕이또홀뜻지
아니항시니신이두리건티진나라이일노죽츠위티홀가항는이다진왕이송구항기를
량구히항다가얼골빛쳐더욱풀너알그티에말을뜻고저항노라모최왕대왕이런하로
씨리를슴지아니항시니잇고진왕알연항다모최왕런히진나라를놓히는조는홀노
위령만두림이야나라또호대왕이런하영웅에님군으로충신렬사다진나라조정에도

혔다항미어늘이제대왕이거츠아비를슈레에츠지너어저사안남마음이잇고두아오
를락살항니우의업는일흠이잇고어미를영양궁에음기니불효항는형실이잇고간항
는선하를죽이니결츄의조음이잇는지라무릇던하로씨리를슴으시며항는비이코
흐시면엇지런하를항복바드리잇고넛적대순은스오나은어미를극진이섬겨상스
람으로데위에올으시고결츄는통방비간을죽여런히반항니선이스스로죽을줄아는
다만두리건티죽은후에다시뒤를니어간홀스탐이업고원망이날노성항고충신이입
을닫쳐빅성이리산항고제휘반항면진나라대업이거의일우다가티왕의게이르러피
홀가두리느이다신이사에말을다항앗스니살무는티나아가기를청항는이다항고일
어서사웃슬그르고가마로뛰여들거늘진왕이급히면에는려가좌슈로모초를붓들고
우슈로좌우를불너량확을업시항라항고모초를붓드러던상에올너안치고왕전일간
항는사람이다만과인의죄만부짓고일죽존망에일은밝히지아너러니하늘이선성으
로항야금과인에무식홀거슬넛니게항는도다모최지빅항고왕대왕이님에신의말을
드르시거든빨니티후를마조드리시고결하에잇는죽임을업시항소서진왕이즉시유
를명항야이십칠인에서신을다판과을조초와용슈산에장스지너고표항야왕희중
라항고죽일에천허거가를말항야모초로어거항고영양궁에거동항야무릅호로거
러드러가티후계뵈이고머리를조오며티곡항니티휘또홀눈물을흘니더라진왕이
초를넛그러티후계뵈여왕이느나의영고숙이라항더라이른날티후를뵈시할양에

라와 모초를 비하야 리부를 숭고상경비살을 더으며려 불위다 시궁금에 왕리 할기 두
러하림 본국으로 가잇스라하니 문신 휘나라의 나가미 각국이 스신을 보되 여문안하
고 다투아 청하야 정승을 삼으라하는 스지 길에 락엽부절하단 말을 진왕이 듣고 그라국
에 쓰일가 두려 슈셔 일봉을 만드러 보되 대략에 글왔스되 군이 무슴공으로 십만호를
봉하며 무삼천호므로 상부라하느뇨 진나라에 서군에게 배분거시 후하고 요독에 모역
이 군을 비로스되 파인이 참아 버히 못하코나 라로 보되 엿더니 군이 허물을 뒤웃치
지아나 하고 또 제후를 교동하니 파인이 군에게 너그럽게 할 뜻이니라 가속을 다리고
축사히 가잇스라 일성을 주어 능개하노라 하얏다 라려 불위 글을 보고 노알내 집을 파하
야 선왕을 붓드려 세우니 공이 엿더하며 티휘나를 문져 섬겨 잉티 하얏스니 왕은 나의나
은 비어늘 엿지셔 로져 바리미 심하뇨이 육고 또 탄왈니 남의으들을 스셔그 만이 남의나
라를 싸하고 스름에 안히를 음난하고 스름의 남군을 죽이고 스름에 제스를 멸하얏스니
황던이 엿지 용납하사 리요하고 드티여 짐독을 술에 타먹고 죽으니라 진왕이 불위 죽
으믈듯고 그 신체를 초지나 엿지 못하는 지라 그 빈식이 도져하야 감촌가의 심하야 그 빈
식을 다 쫓고 인하야 하령하야 나라 마온티 잇는 타국유제식을 다 쫓츠니 초나라 스름의
스란조는 명현순경의 데조로 학문이 광박하야 일즉진나라에 노라려 불위 스인이 되얏
다가 불위 그 지조를 천거하야 각경이 되얏더니 또 혼쫓기는 마온티 드리는 지라 길에 가
다가 상소를 지어 과밀서이다하고 우체로 전하야 진왕게 올니사 대기에 글왔스되 옛날

목공은 유여를 용에 가취하코 빅리히를 완에 가엇고 건축을 송에 가마자오고 비표와 궁
손지를 진에 가구하야 오고 효공은 상앙에 범으로 써서 부강하코 혜왕은 장의게 교을
쫓츠 류국 합동을 호렷고 소왕은 범슈를 어더 써 겸병하얏스니 옛날 군이다 각에 힘을 넘
어 공을 일헛거늘 티왕이다 쫓치시니 각이 장창라국으로 가리니 진나라를 위하야 충
성을 본바들지를 엿지 못하리이다 하얏다 라진왕이 그 글을 보고 크게 쳐다라 축각하는
령을 거두고 스름으로 싸라 가리스를 러산으리셔 만나 할양으로 다려와 그 비살을 회복
하니 리치인하야 겸병을 술노진왕을 달너니 진왕이 그 색를 써너스 등으로 하야 금군
스십만을 거느리고 하나라를 치니 이씩한 혜왕이 흥하코 티조안이 죽위하얏더니 공지
한나라이 점사씩김을 보고 한왕게 조글을 올녀 말하되 한왕이 능히 쓰지 못하더니 진
병이 한을 치니 왕한이 두려하거늘 공조비 그 지조를 퍼지 못할가 두려 스스로 한왕게 청
하야 진나라에 스신가 그군스를 거치리이다 하니 한왕이 좃거늘 진나라에 드러가 한왕
이 쌀을 드리고 번신이 되기를 원하느이다 하되 진왕이 티희하니 공조비 인하야 제물을
느위려하야던하에 종친하는 거슬 파하코진나라이 겸병을 색로 달너여 그 자은바설
난과 구분파오두와 설님등오십여 만인을 드리거늘 진왕이 기거하야 각경을 삼고 국스
를 의논하랴하니 리치 그 지조를 쟈려진왕게 참소하야 한을 위하코가 만이 진을 허롭게
하랴다하니 진왕왈 그럴진디가히 쫓치리라 리치 왈 옛날에 위공조무기와 조공조평원
을 진나라히노화보되여 후에 진나라근심이 되얏스니 한공조비도 노화보되면 한나라

날기를더으리니죽이소서진왕이한비를유에가도의정창죽이라하더니한비유리다

려왕내무슴좌가잇느뇨옥리왕흔조로에들이웅영이되지못하리니당금지세에지조

잇는스담을쓰지아니면못비할지라곳타여죄들의논하리요한비강기하야글을지어

란식하교이밤에목미여죽으니한왕이더옥두려나라로신하를일컷거늘니스등의

군스를파하다일々に진왕이리스로더부러일을의논하다가한비에지조를파장하교

그죽으물앗기니리서왕신이흔스담을천거하리니성명은을요々대량인이라그지조

가한비에서심비가더하니이다진왕알그스람이어더잇느뇨리서왕이제함양에잇스

나스스로지학이놓흙물미드니가하신하에레로굴쳐못하리이다진왕이점두하교넌

키지레로써부르니울외치란지리와강약지설노말하야심히리치에맛게말하거늘진

선성이라일카르니울외치란지리와강약지설노말하야심히리치에맛게말하거늘진

왕이대열하야놓히상직을삼고의복을식을다진왕파곳치하교시々로그머무는집에

는아가사러그라치를청하더라울외스람다려왕진왕이위인이코히크고눈이길며미

가슴이요식랑에소리라호랑의마음을품고잔잉코은혜셔어스담을쓸되는가비야

이남에게굴하교아니쓰면또하느라비야이버리々니이제던히일등이되지못하교로몸

을포의에게굴하거를앗가지아니하거니와만일뜻을어드면던히다어육이되리라하

고하로밤에하직지아니코도라가니라관에잇든아전이급히진왕게보하되진왕이팔

과손을일으듯하야급히초거를보되여스면으로쫓츠가츠져드라와민세를세우고

비하야티위를술아병스를주하하교그데즈를다비하야대부를삼다진왕이을요에

계교를써황금오만금을너여을요의제왕오로하야금슴전에가반간을노흐라하

고되장화괴를명하야군스심만을거느리고함곡판에는아가위느라를천다하교조느

라업도를엄습하니도장호첩이막아싸호다가크게되하거늘환괴승々장구하야업도

를씨이고연하야구성을파하니호첩이물너가외안에잇셔조왕게고급하되조왕이군

신으로의논하니다닐오되옛날에염피능히진병을막고방씨와악씨다명장으로일컷

더니방난은임의죽고악씨도업스되오직염피위나라에잇스니엇지부르자아니하

시느뇨하거늘과기전느라회퇴를바든지라염파를도느라이쓰지못하게하라하야도

왕게참소하야왕염장군이느허철십이갓가와근력이쇠하교하를며전에듬이잇섯스

니만일불너서쓰지아니면더옥원앙하리니몬져스름을보너여그쇠하교아니쇠하를

보고오라하소서조왕이그말을조츠너시당구로하야금갑옷흔별과조흔말네필을가

지고가서로문하교그괴력을살펴보라하니과기가만이당구를청하야황금이십일을

주고염파를해방하라하니당귀도라와그괴력이쇠하얏스므로그스이다부러안조말

할스이에똥을세번흘너더이다하니조왕이탄식하교인하야병드러흉하니티조던

이죽위하야과기로상국을삼다진장환괴도느라상산을파하교첩을버히며군스십만

여인을죽이고한단을필박하니도왕천이티조되옛실씨에대군티슈리목에능하를드

러더니이에급전을써여리목을불너티장군을비하교진나라군스를물너철방척을

물으니 리목이 뒤왕진나라이여러번이 권위임을 띠서치니 그봉예를씩기쉽지못함을
지라신으로편의함으로죽초형하고법에거리씨지아니를빌니셔야가히명을받들니
이다조왕이허락하고되싸히셔다려온군사만과국년에잇는군사심만을조발함야
조총과안취로아장을삼으니 리목이형군함야비누란싸히진치고견벽를출하니진장
환과일오티옛날염피진을긋게함야왕홀을막더니이제리목이또와계교를쓰는도다
하고군사를반에난화감천시를엄습함겨늘조총이구완함기를청호되리목왈제가치
는거슬내가구완함면이는남의계넛글니미니병법에쓰리는비라내가그병을치니만
곳지못함다함고군사를세길노난화밤에그영을엄습하니진군이준비치아니함앗다
가크게피함야진군중에아장십여인이죽고군사죽은거슨그슈를아지못함너라환과
감천시에셔이말을듯고대로함야왕사를다거느려와싸호거늘리목이삼노로치니환
과디피함야함양으로다라나더라조왕이리목의공을아름다이녀여무안군을봉함고
식읍만호를주니라

초설조왕천이죽위오년에되싸히셔괴진함여담과집이다기우러지고싸히갈나지가
를일백삼십보이나함고한담이크게가무니민간에동외잇셔근오되진느라스름은못
고조느라스름은부르지자는도다밋지아니커든싸히셔털이느는도다함더니과연명
년에싸히셔현털이나니길이가흐르지아니되더라과키이말을듯고조왕씩들니지아니
함다잇셔연티즈단이진나라에불모함앗더니진병이되말함야조나를치물보고연

나라에도화밋출출알고가만아연왕게글을보니여급히방비케함고또거짓연왕이병
이있다함야티즈를청함야연나라로도라가게함야달나호되연왕이그티로함니진왕
왈연왕이죽지아니면티즈도라가지못함리나가마귀머리가희여지고말이셀이느야
가히도라가리라함나티즈단이하늘을우러크게부르지자니원망함는괴운이바로
운소의스못처가마귀머리다희여지되진왕이오히려보는지아니귀늘티즈단이이에
웃슬곳치고얼골을허러북녀오랑키모양이되야함곡관을느아가연느라로가니진왕
이바야흐로한과포를도모함노라연티즈도망호죄를물을결을이업더라

지설조장리목에티군이희천산에진치니진병이감히느아가자못함는지라진왕이다
시왕오로함야금반간을노흐나과키왕오에반간함는회퇴를밧고조왕에게참소함야
조총으로되장을숨고리목을불너드려죽이라함야스마상으로함야금절월을가져리
목에게로보되였다니스마상이리목에게루설함니리목왈조총이되장저목이아니스
내가히인수를주지못함리라함고인을영중에걸고밤에미복으로도망함야위나라로
가더니조총이과키에천거호공을감격함고또리목에인수를즐겨주지아니물로함야
력스를보되여리목을죽추가슈막에서죽이니라

각설진병이리목이죽으물듯고셔로하례함고왕전과양단해량노로군사를모라조총
을버히고한단을에우니진왕이니스등으로함야금군사를올겨한나라를치니한왕안
이크게두려그남은싸함다드리고진나라신허되거늘진왕이한나라싸호로영천군을

삼다지설진병이한단을과하니조왕천이항복하거늘공경기총족슈빅인을다리고안
 취로더브러복문을나성야로티따히가스스로대왕이되고리목에공을포장하야그벼
 솔을회복하고천히제스하야티따스람에마음을슈습하더라지설진왕이조왕에궁에
 드러가안조왕으로신하례로써죄움을받고화시벽을회롱하야왈이는선왕이십오
 성으로밧고의도엇지못흔비라하교이에조나라사흐로거룩군을삼고과키로상경을
 삼으니조왕이바야흐로과키에나라판죄를쳐닷더라진왕정이조왕천을방릉에안치
 하니조왕천이슬허하야병이발하야죽거늘대왕기듯고시호를유목이라하니라진왕
 이반스하야할양에도라가니과키금은을쓰흔거시심히만하능히다가저가지못하
 앳더니스스로진왕게말하고결을사비러한단에가음겨오기를청거늘진왕이웃고허
 락하니과키한단에일으리금무든거슬키여슈리에실고가가중노에서도적이죽이
 고금을달취하야가니혹말하되리목에키이라하더라지설연덕단이드망하야본국
 에도라가진왕을한하야가산을훗터크게빈익을모도와진나라원슈를잡흐라할셔용
 스하부와송의와진무양을어더후히디접하고진장번오그리를엇고연나라로도망하
 야오거늘연단이상키을삼아여슈동에큰집을짓고잇게하거늘티부국위탄왈진은호
 랑곳흔나라허라듬이업셔도일을니이거늘하를며원슈의스람을거두어써그란역을
 삼으니룡의비늘을거스렷타녀상하미반듯하리니원컨디티즈는변장군을홍도로
 보니여연나라에두지말고각국으로연약하며홍노를결연하야서서히도모하소서티

지왈티부에게교는광일지구하고단의마음은불에티움코트여잠잔도진정할슈업술
 쏘더러변장군이궁곤하야오미단이불상이니이니엇지차마만리황막흔사흐로보
 니리오단이죽을지언정못하리니티부는다시량척을싱각하야보라국위왈약흔연나
 라로써가흔진나라를결음이러력을화초에더짐과알노써바회를침가흔지라신이저
 해쳐르고아는거시업셔능히세하지못하교아는바전광선성이란지제잇고범상흔
 스람이아니사티즈는전광을쳐져문의하미맛당할가하느이다티제종기언하야이에
 국무로더브러흔게가기를일으니국위문져전광을가보고티즈에스모하는썩 베편
 티전광이드티여국무를싸라오거늘티제궁에나아가만조수레에나려곳비를잡고의
 서드러와상좌에안치고교교를무른티전광왈신은드르니준종의말이성장할덕에는
 일사에천리를달니다가높고최하면로둔흔말에게뒤진다하리티위다만신의성장하
 썩만알고이외쇠로흔줄은아지못하니이다티지왈선성에교유하는스람중에가히쓸
 만한스람이잇느뇨전광이머리를흔드러왈크게어려오니티즈의문하직중에쓸스람
 이잇는가보깃스오니부르소서티제하부와송의와진무양을다려온티전광이보고왈
 다가히쓰지못하리니하부는혈용지인이라로흔죽나치북어지고송의는믹용지인
 이라노흔죽나치프르려지고진무양은골용진인이라로흔죽나치희여지리니희로가
 일골에나타나스람으로알게하면엇지일을일우리잇고신에아는바형가라하는즈는
 본티제티부경봉의후에라성씨를곳쳐형씨라하교지금연나라에왔스오니술을즐거

그 벗고 점이라 하는 사람으로 더 버러져 가온디 서술마시고 고점리는 비파를 타고 형
가는 노리 부르며 문득 체음하야던 하에 아는 사람이 업시 늦겨하니 이 사람이 모략이 겁
고 힘이 만흐니 이다 디저 왈 성성은 형경을 청하야 주기를 바라노라 전광월 형경이가 난
하야 신이 미양 그 유용을 도아 주었스니 맛당이 신의 말을 드르리 이다 디저 저과 타든
슈리로 전광을 띠게 하고 부락하야 왈 원컨디 성성은 타인의게 누설치 말나 전광이 소왈
신이 감히 못하리 이다 하고 죽시 형가들 가져보고 디저 의스모하는 뜻을 일으니 형기
왈 성성의 명하는 바를 잊지 좃지 아니 하리 잇고 전광이 탄왈 장자의 형실은 사람이
의 심치아 낫는 다하니 이 제 디저 국스로서 광의게 말하교 루설치 말나 부락하니 이는 광
을 의 심하미라 광이 사람에 일을 일우고 조하며 엿지의 심케 하리 요죽으므로 써 밝히노
니 원컨디 죽하는 디저 에게 보라 하고 스스로서 목질너 죽거늘 형기 바야흐로 비읍하
더니 티지다 시스 람을 보너 여형경이 오는가 숨히라 왈 거늘 형기 티저 궁에 가너 티지디
접하기를 전광과 갖치하교 전광에 죽으믈 듯고 가슴을 어로 만지 통곡 왈 전성성이 단을
위하야 죽으니 엿지 원릉치 아니 하리 요하교 랑구 후에 눈물을 거두며 형가에 게머라 조
아 왈 형경은 단을 비루히 녀이지 말나 형기 왈 티저 의 뜻에 엿지코 조하느뇨 티저 왈 진나
라는 호랑갓트며 삼키고 너 흘기를 슬희여 아니 하야던 하를 다 거두고 제후를 다 신하로
거느리지 못하면 마음이지 아니 하니 한과 최임의 멸흔지라 단이 이르므로 안즈디저
리에 편치 못하교 밥을 티하미 저를 폐하노라 형기 왈 티저 의 계고는 군스로서 닷도라 하

느니 잇가 다른 묘책이 잇느니 잇가 티저 왈 제후로 합동코 조하나 다진나라를 두려하니
단의 미련 혼성각에는 진실 노련 하용스를 어더 거 죽쥬되를 가지고 진나라에 스신을 보
너 여진왕에게 갖가 하야 스이를 띠라 겁박하야 제후에 침노 혼하호로 다돌여 보너 여조
말이 제 환공게 하듯하면 크게 조흔일이 요그러치아너 커든 질너 죽이면 저의 장상이셔
로 닷도와 상히 화목지 못하셔 에 조와 위를 합하교 한과 조에 조손을 세워진나라를 파하
면이는 건곤이 지조하는 때라 형가는 유의하야 보라 형기 침스 랑구에 왈 이는 나라에 큰
일이니 신이로든 하야 죽히 감당치 못하느니 다 티저 스삼고 청혼디 형기 허락하거늘 이
에 번오기에 집우편에 다시 혼성을 싸하 일 혼을 형관이라 하야 형가를 밧들고 티저 날마
다 문하에 가문후 하고 티저 드리며 잔스이 와미여를 드려 오죽그 뜻에 맛갓자아닐
가 두라더니 일스은 형기 동궁에 드러가늘 시연 못시큰거복이 잇스믈 보고 우연이기와
조각을 집어던진디 티저 금화를 밧드러기와 조각을 디 신하교 또 일스은 혼가지로 말을
달닐시 티저 천리미 잇거늘 형기 우연이 말에 잔이 맛시 좃타 하얏더니 잠잔스이에 초인
이 말잔을 드리니 이는 천리마를 죽여 잔을 닦이엿고 티저 번오기를 청하야 형가와셔로 보
게 할시 고이는 바마 인으로 술을 드리며 거문고를 타더니 형기 미인에 손이 고으물보
고 아름답다 하얏더니 주연을 파할후에 너시 거무어 슬옥반에 담아 오거늘 형기 보니 미
인에 손을 신히 보너 엿거늘 형기 탄왈 티저 나를 디 접하미이 띠듯 후하니 맛당히 죽기로
서 갑하리라 하더라

설형기 평일에 스름으로 더 브러 검술을 의논하미가 허허락하는 스름이 업고 오죽마
음에 항복하는 유초 스름갈성이라 갑히스피엿더니 형기연티즈의 후은을 입어 진나
라에 드러가진왕을 겁박고 조하야갈섭을 초저훈계상의하라하되 종적이운유하야진
지찾지못하고 티즈는 조석으로 공경하기를 깨어나니 하더니 홀연드르니 진병이침
노하야연나라 디경에 일은 다하는 지라 티왕키스신을 보니 여연나라와 혼가지로 상국
을직히 조하거늘 티즈크게 두려형가다려왕진병이만일역슈를건너면죽히게교를히
코조하나 밋츠라형기왕신이싱각하기를 의히하얏느니 밋불거시업스면진왕에게갓
가이가지못할지라 번장군에머리를진나라황금천근과고을만호로구하되머리를엇
고연나라독항은기름진싸히라진나라이욕심을느니니독항의슈를아을느가지고
가야진왕을갓가이하야시러금서로한게하리이다티즈왕번장군이공곤하야왔스니
츠마엇지하하리요독항기도는앗기지아니하노라형기스스로이번오괴를보아왕진
느라이장군에머리를금천근과음만호로구하다하니엇지면그한을풀니요번오괴양
던탄식하고눈물을흘내왕진왕정을싱각하명등한하기심골에스못처흔게죽고조
하느그싸히업노라형기왕이제흔게교잇스니가히연느라근심을풀고장군에원슈를
갑고조하노니장군이즐겨드르라오괴급히문왕게교어티잇느노형기주저하고말을
아나하니오괴왕형경이엇지말을앗느노형기왕게교는잇스니입에말을너이기가
러워라오괴왕진실노진느라원슈를갑흔진티분골쇄신하야도앗갑지아니하리니무

숨말하기어려우리요형기왕나의머련흔게교는진왕을압흐로질으고조하되그압히
가기어려오니진실로장군의머리를어더드리면진왕이반다시갓거불거시니신이좌
슈로그소리를잡고우슈로그가슴은떨으고조하느니장군은엇더타하느노번오괴웃
솔벗고팔을뽑너며말을골너크게불너왕이느나의일야로절쳐부심하느비나게교업
숨물한하더니이제밝히마라치물어드니다형하도다하교갈을싸여죽거늘형
기다시그머리를흔코스름으로급히티즈에게보너니티제달너와죽임에업티여등곡
하고그몸을후장하나라형기왕티제일차비수를어더두엇느니잇가티제왕조나라스
름져부인이비쉬잇서기리일척팔촌이요심히날내여스름을시험하디피가실낫츠처
흘너셔셔죽거늘빅금으로써스두엇노라야지못케라형경이어너날져나라하느노형
기왕신의조하하는기갈섭이오지아니미기다려버금을삼고조하느이다티제왕죽하
의기이바다에부평초코흐니괴약을정처못할지라단의문하에용스슈인이잇스되
오죽진무양이가장나으니혹가히버금을숨으라형기왕왕이제비슈하나흘가지고강
진에드러가니가기만하고도라오지못하는갈이라신이지고하기는나의귀을기다려
만전하기를도모코조하미러니티제능히참지못하시니이제가잇느이다티제이에
국서를만드러다만독하디도와번오괴머리를드리노라하교천금으로써형가에차장
을하교진무양으로버금을숨아셔나갈시티제그일아는몇스름으로더부러흰옷슬입
흰관쓰고역슈우에가셔전별하니교접리또흔그일을알고도야지다리와말술을가

왔거늘 형기와 뒤져서로 보게 하야 갖치안 조술마시고 식고 접리는 비과를 타고 형기는 로리를 불니 왈바름이 소하호미역슈가 초도다하니 그 소리 심히 쳐량호지라 여러 사람이 다 눈물을 흘니 거늘 형기 낫출우러 하피운을 보니 말은 손에 스 못쳐 흰부지게 되여 허가 온티를 썬이 거늘 형기 깡기 하야 다시 노리 하야 왈호혈을 마지미여 교궁을 드러가는 도다 하늘을 우러 하피운을 불미여 빙홍을 일우는 도다 그 소리 겨절웅장 하야 여러 사람을 다 눈을 부릅뜨고 도적을 디호듯 하더라 락지다 시술을 부여쉬러 안져 형기에 게드린 디 형기 바다마시고 진무양의 팔을 잇글고 슈리에 띄여올나도라 보지니 코빨니 모라가 거늘 디적 놓흔 디올나 바라보고 척연 하야 무어 슬 일흔 것갓더라 형기 할양에 드러가 중선 스몽기 진왕게 총이 잇스물듯고 몬져 천금을 주고 인진호물 청하니 진왕이 번오기 머리를 가져왔든 말을 듯고 디희 하야 로복을 주고 호형기를 불너 드리거늘 형가는 번오기 머리를 들고 진무양은 독항디도를 가져장 찾섬들에 올나갈식진무양의 일골이 희여져 죽은 사람의 빛갓고 두려하는 형상이 잇거늘 시신이 곧 오티스지 빗치 변호문엇진일이 노형기 진무양을 도라보며 웃고 압호로 올나가고 두하며 왈 일기 진무양은 북변만나지인이라 평성에련조 의위의 를 보지 못하야 진공하오니 대왕은 그 죄를 관셔하사 스명을 맞게 하소서 진왕이 전자 하야 다만 정스 일인 만전에 올나라 하나 좌위 무양을 썬지 저 섬돌에나리오더라 진왕이 번오기 머리를 보니 과연 호지라의 심치이니코 독항디도를 가져오라 하야 불서비쉬드러는 치라 형기 급히 좌수로 진왕에 스디를 잡고

우수로 비슈를 가져가 숨을 지르니 진왕이 디경하야 몸을 썬쳐 일어나 미스디 싯혀지니이 떠는 오월 초순이라 입은 옷시 열분고로 썬어 지기를 쉽게 하더라 왕의 안젓든 것히 병풍은 쳇스니 기리가 팔척이라 진왕이 띄여 넘거늘 형기 비슈를 들고 뒤 흘싸르니 진왕이 기등을 도라 닦는 지라 원티진나라 법이련상에 되신 하히척촌에 병장기를 가지 하못하교 슈위관병은 병기를 가지고 천으리 잇셔 부르지니 면면에 오르지 못하는 고로 창졸에 변이나 디 밋쳐 부를 결을 이 업고 군신이 손으로 형가를 두다리나 형기 말로 차 업더치고 되섯던의 원하 무단이 약쥬머니로 처거늘 형기 팔을 두루니 약쥬머니가 다터져 브스러지더라

진왕이 등으로 닦고 셔으로 띄여 형가의 배뭇들니 지으니 하교 찬갈이 보겘이 나 기리가 팔척이라 썬여 형가를 지르고 조하나 칼이 근드러 거려 능히 썬이지 못하더니 적은 너시 조고 란적 급히 불니 왈 디 왕은 잇지 칼을 등으로 미러 썬이지으니 하시는 노진왕이 썬다라 칼을 뒤로 보니 여 손을 등으로 넘겨 썬어 드니 진왕에 힘이 형가만 못하 지아닌 지라 형가에 칼은 기리다 만흔 조 남 죽하니 갖가이가 야 지르 깃고 진왕의 칼은 팔척이니 가히 멀니셔도 질을 지라 진왕이 형가의 왼편 다리를 지르니 형가 하구리 기동엽히 업더져이러서 지 못하교 비슈를 가져진왕을 바라고 더지니 비슈진왕의 귀가 으로지나 가우편 구리 기동에 박히며 불빛치 흐르더라 진왕이나 시갈 노형기를 치니 세손가락이 싯혀지고 연하야 지르니 형기 기동에 의지 하야 우으며 진왕을 썬

저저왕용명하다네로구나내로말에고스를본바다너를법박하야제후침노흔흔들
너보너고조하얏더니네다형이면하니엇지하늘이아니리요그러나네강을밧고제
후를탄명하니엇지오리누리々오하더라좌위달녀드러형가를쳐죽이고진누양은던
아티잇셔올나가라하다가중인이쳐죽이다진왕이마음이셀니고눈이어즈러위우독
커니안조반일이지만후에야진식이바야흐로정하야형가를보니두눈을부릅써원
연아산사름에노괴발々하것것거늘진왕이두려워형가와진무양과번오괴의머리를
다져지々온티가불지르라하고연나라중인을다효슈하고이든날공을의논할식하무
단은황금이빅일을주고조고는황금빅일을주고군신중에손으로형가를천스름은다
상주고진무양죽인스름을다상주고몽가는형가를그릇인도하야드렸다하야릉지쳐
찰하고진왕이오히려노괴쉬지아니하야군스를더욱발하야왕분으로거느러가그아
비왕전을도아연나라를치니연티조단이마조싸호다가크게피하야계성으로다라나
거늘왕전이합명하야연성을과하니연왕이요동으로다라나압록강을건너평양에응
거하얏는지라왕전이첩보를올니고일변으로상표하야조병을알외니진왕알티조단
에원슈를아니갑지못하리라하고리신으로티신하야연왕을싸로하다연왕이리신
에오를듯고리조단으로도화도로다라나숨게하나라리신이드티여슈산의진치고글
을보너티조단으로슈죄하니연왕이티경하야거죽티조단을불너일을의논하려노
라하고술을취케흔후에목미여죽여그머리를선을며연왕압혜을기를마지아니하더

나 추시는 오월절과라흔연하늘에서큰눈이나러평디에두조다섯치가싸히고침가업
동갓흐니스람드리일이기를던조단의원피라하더라연왕이티조의머리를진국에보
너고스죄하너리신이진왕의게알외고오월에티설이와군식병이만히나잠간반스하
야쉬여지라하디진왕이올요외의논하고리신을불너드리고왕분으로위나라를쳐위
왕가를스잡아합양으로보너엿더니병드러죽고위나라싸호로삼천군을삼다이씨
는진왕정의이십이년이라진왕이다시올요외의씨를써초나라를칠서리신다려왕초를
쳐러하면군스를얼마나쓸고리신이티왕이십만인의지나지아니리이다또왕전다려
무르너티왕리신이가히이십만으로초를천다하나반다시피하리니륙십만이아니면
가차아니하니다진왕이성각하되왕전은흔은스람이니갑하는도다하고리신으로
군스이십만을거나려초를쳐평의성과신성을과하고부장목무로언약하야주성으로
항하니초나라의리원이춘신군왕홀을죽이고유왕한을세운지십년에흥하고무조하
니공조위죽위하얏더니그서형부취공제유를죽이고스스로선지삼년이라진병이급
히드러오를듯고항년으로티장을삼아군스이십여만을거나려슈륙병진하야신성에
가리신을만나철로복명하야삼일삼야를크게싸화진병을과하고싸흔회복하니
진왕이티로하야리신에관작을삭하고친히슈리를명하야번양에가왕전을보고문을왕
상군이리신에이십만군으로초를쳐과하리라하더니이제과연진군을욕되게하니장
군이비록로경이나흔번가기를바라노라왕전이제비스왕로신이그력이다죄하얏스

오니 대왕은 다른 장수를 불러 여맛기 쇼셔 진왕이 구지 청하니 왕전 앞 부득이 신을 쓰
진티 륭십 만인이 아니 면가 처아니 하니 다 진왕이 즉일에 왕전으로 대장을 삼고 륭십
만군을 주고 몽무로 인하여 부장을 삼고 진왕이 친히 피상에 가 보낼시 왕전이 술을 올려
진왕게 드려 왕대왕은 이 술을 마시고 신의 청을 드르쇼셔 진왕이 바다마시고 무르니
왕전이 스미안으로 서글쓴 조희를 녀드리니 할양안에 잇는 조흔 밧과 큰 집을 청하얏
거늘 진왕 왕장군이 공을 일위도라 오면 파인이 부귀를 할가 지로 할리니 엇지가 날 할가
두리쇼 요왕전 왕신이 능하스오니 덕왕이 비록 공후를 봉하셔도 신은 바람 온티 족불
갓트여 몇히나 지렁하을 자물으 오니 신이 눈으로 보는티 조흔 전력을 주셔쇼 손에
업을 숨기를 바라나이다 진왕이 디쇼하고 허락하거늘 이에 함곡에 갈시 왕전이 다스
람을 보너 여동산과 연못 두어 곳을 또 청하니 몽위 왕로 장군에 청하는 거시너 모만치아
니하니 잇가 왕전이 가만이 일오티니 전력을 만히 청하야 조손 계를 할다 하든 진왕게 마
음을 평안케 하미로다 하더라

각설왕전이 륭십만티 군을 거느리고 초나라로 나가니 초장항연이 동강을 죽히엿다
가진병이 만히 오물보고 초왕게 군사를 더 청하니 초왕이 다시 이십만군을 발하야 항연
을 돕더라 왕전이던 총산에 진쳐 삼여리에 영치를 연하고 검벽을 출하거늘 항연 왕왕전
이 능하스니 겁하는도다 하더라 왕전이 날노소를 잡으며 술을 두어 천히쇼 졸노더 브러
하가 지로마시니 군졸이 감겨하야 여러 번싸호기를 청하되 다 만술을 주어 위로하사
를이라이갓치하기를 여러달이되니 쇼졸이 혼가하야 돌더 지기로 회롱하거늘 왕전이
미일조련하야 군사의 승부를 보아 강약을 알고이러기를 히가 지나되 혼싸호지아니
쇼항연이 일오티 왕전이 일흠만초를 천다하고 실은 제물을 보전하미라하야 싸홀방비
를아니커늘 왕전이쇼에 장사를 크게 하고 왕이 제야제군으로더부러 초를 파하리
라하니 장쉬다슈먹위를 갈며 압서기를 닦도거늘 효용흔조이 만인을 싸별노일군을 밋
들고 중군을 난화초전으로나아가니 항연이 불의에 진병에 충돌하을 만나하니 히죽히
백인을 디적하니 초병이 디피하야 항연이 동으로 닦거늘 싸라가 쓰영안섬에서 크게
파하고 서릉을 함몰하니 형양이 전동하더라 몽무로 진쳐고 왕전이 쇼스로 대군을 모라
슈출을 싸이고 초왕부추를 쇼로 잡으니 진왕이 친히 번구의니 르러 항복을 밧고 부추를
폐하야 서인을 숨다

지설항연이 군사이만오천인을 쯤모바다 서성으로오다가 초왕에 동모제창평군을 만
나슈출이 파하고 초왕이 쇼로 잡히물듯고 창평군을 다리고 강을 건너난능에가 창평군
을 제위초왕을 숨고 군사를 모화직히더라 차시왕전이 회람을 회복하고 진왕을 악저에
가외온티 진왕이 그공을 표장하고 왕항연이 또 초왕을 강남에가 세위스니 엇지하리요
왕전이 디왕초나라형제는 강희에잇거늘이 제희싸하다우리둔비되엿스니 저희잔병
이그외남앗스미대군이 가면곳다결박하리니 엇지죽히넘너하리잇가 진왕왕왕장
군이 비록하엿스나 뜻이 엇지그리장하쇼하고잇흔날 할양으로도라가고 왕전을 머물

강남을 평정하라 하니 왕전이 몽구로 하여금 비를 인무주에 서지어히진 후에 슈류하
야 나려가니 강직현근시능히 막지 못하더라 못히을나 티군이 물미듯쫓쳐나아가니 항
연이 비록 용맹하니 엇지 당하리요 창평군이 슈성하다가 살에 마즈 죽으니 항연이 우
려와내 투싱호하는 우씨 일막에 싣치지 아니물 위하미러니 이제는 누구를 바라리요
고하늘을 우러스부르기를 세 번하고 스스로 목질너 죽으니 강남이 평정하라 진왕
이 강남으로 써구강과 회개 두고 을을 두다 진왕이 왕전을 황금천일을 주어 번양에 가
라하고 그 아들 왕분으로 대장을 삼아 연왕을 평양에 가서로 잡아가도 앓더니 스스로
죽거늘 운송안문등을 다 앓고 함양에 첩보를 니스 진왕이 슈셔로써 제나라를 마즈 평
정하라 하니 왕분이 하간을 바라고 나가니라

각설제왕건이 국상 후승에 말을 드러한위를 구지 아니하고 진이 티양일국을 벌하면도
로허스신을 보니 여칭하하니 진나라 황금과 후퇴를 가지고 오는 스신을 후타하야 제
나라에 도라가 진왕에 후의를 전하면 제왕은 밋고준비하마 업더니 왕분의 군사 제남을
범하니 제왕건이 즉위호지스 십년에 병혁을 보지 못하고 일즉 무예를 니이지 아였다
가 줄지에 진병이 티산이 누르는 듯쫓쳐니 엇지 디척하리요 왕분이 입치를 무인지경
갓치드러가니 제왕건이 속슈무척하야 항복하거늘 병장기의 피를 못치지 아니하고 두달
스이에 산등을 다 어드니 진왕이 전령하야 상국 후승은 그곳에서 참하고 제왕건은 스십
여년 귀순정으로 그쳐즈를 다리고 공성으로 옴기니 모옥슈간이 티항산아티잇고스면

이다 송백이 요거민이 업고 공권이 다하여 졌스나 오히려 슈십인이 되는되다 만말곡식
을 주니 너스지 못할중유식덕를 정처 못하니 왕건에게 다 만일 지잇스나 나히어린거시
비곰파 밤에 우니 건이 천연이 이러안저 송백에 바람부치는 소리를 듯고 임처에 잇스
에 부귀가 었다 하더니 간신 후승에 말을 드러나라 홀망하고 궁산에서 주리니 뉘웃츠나
엇지 밋츠리요 을기를 닳치지 아니하다가 슈일만에 죽으니 라이씨는 진왕정의이 십
륙년이라 륜국이 다 아을나련히 통일하니 진왕이 륜국이 다 왕을 일카라그 일흠이 놓지
못하다 하야 이에 상고 님군의 일흠을 우러스스로덕이 삼왕을 겸하고 공이 오데에지
나다 하야 황데라 일컷고그 아비 장양왕을 티상황을 추존하고 또 일오더 슈공이 시호
법을 지어 아들이 아비를 의논하고 신히 임군의 논하미례아니스 이후로는 시호법을
업시 하야 짐은 시황데 되고 후세에 슈를 헤어이 세삼세로써 백천만에 일오도 록무궁
하게 전하라 하고던즈는 스스로 짐이라 일컷고 신히 일을 알월 제 폐하라 일컷고 화서백
으로 전국 육식을 만들교여덜글즈를 사여왈 슈명이던기 슈영창이라 하고 또 오덕에 전
하는 거슬 밀위여 주나라이 화덕을 어드스니 물이 능히 불을 면하다 하야 진나라는 슈덕
의운을 응하고 의복과 정의를 다 거문 빛출상하고 심일삭으로 정사를 삼고 온갓 법령
을 다시 화이스스로 주장하니 사람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지라 을외시황의스괴영만하
를 보고 탄왈 진나라이 비록 단하를 어드스나 원과가 쇠하얏스니 엇지 능히 길니요 하고
게즈로더 브러하로 밤에도 망하야 간곳을 어지 못하나라시황이 군신다려왈 을외짐을

바리고가미엇진것이요군신이 다일오디올외폐하를도아스히를정함미공이데일크
니벼살을높히고스홀봉하기를유공갓치하기를바라더니폐하존호를임의정함서디
공을의논함미업스시니제삿을일허가미이다시황왕후나라하는화봉하던법을오
히려가히형함라군신이 다글오디연파제와초가스히머니제후를두지아니함면진정
치못함리이다리시왕후나라봉함나라히속됨이러니스손이서로닷도아죽이니폐
하는스히를동일함사공잇는신하는록봉을후함고척도일면도천조치못함게함시
면병혁에근원이신허지리니엇지장구지척이아니리잇고시황이그의논을숫츠런하
를난화삼십륙군을난호고련하여병피를도취함야할양궁에금이심이기를민드려나
라이부강함을조랑함고상림원에장터를창건함고상관에복도를놓힐시크게공녀를
일우허궁실을짓고제후에보닌바미녀를그속에취오고다시군신다려알고스제왕은
련하여순행함야빅성의절고를살폄다함니점이스제너의빅관과슈행코스함니경
등에향의엇다함요제신이주왈고조의옥도지군은련하여순행함야민간절고를살피
였스니금일성피가장맛다함니이다시황이이즉시거가를동함야몬져통서북디를당
함야일스은폐두산에올나바라보니동남간으로오치어티였스되비연비무요은스중
오치영릉함야상광이거룩함거늘근신위무지다려왈이무슴징조노무지유왈구름이
각스명호가잇스디상운부는서운체운경운이잇스니신이보건되대귀할구름이라그
응함마원산치아니함니이다시황왕그러면엇지함야조홀고무지왈괴운을폐히천

히진압지아니시면제어키어려올가함는이다시황이올허녀여거가를동함으로음거
추력산에올나돌을제워공덕을송함고가졌든티아검을글너산하에못고회슈를편너
함양에도라오니군신이영접함야궁에드러와빅관에조회를밧고슈일지닌후시황이
가만이성각함되동남에오석구름이무어싱응함을알길이업서심하에불락함야함니
군신이주왈련의화창함고어원에빅해만발함앗스오니폐하는흔번구경함사를결함
희포를소창치아니시니잇고시황이그말을숫츠근사와비연을다리고어원에일으
려춘경을완상함고현경루에올나잠간조으더니홀연들으니일성향스의홍일이면천
에떠러지며흐릿소이눈은중동이요일골은강철갓흔티청의를넘고오더니홍일을
안고가라홀즈음에남편으로일지소의를중룡안에홍의를입고오며웨여왈너는홍일
을가져가지못함리라함고셔로쓰홀시청의동지홍의동즈를연함야철시철십이번을
업지르되홍의동지함복지아니함고셔로쓰호더니흔번뒤여이러나며청의동즈를업
지르고홍일을거두어안고다라나거늘시황이불너왈너는아직닷지말고내말을드
르라너는엇다홀집아히며성명이무어신다동지답왈나는소순의후예요공피현에서
성장을고몬져함양에드러가고축중에잇다가다시나와스빅지슈를츠지함라함노라
언파에남으로가며운무가즈옥함고홍광이만지함야동즈의가는곳을아지못함지
라시황이늘나쳐여몽스를가만아싱각함니홍다길소함야해오되나의진국련지필경
은타인에어들비되리로다함고근시로의논함야장성블스홀약어더먹고만세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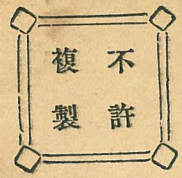
라 살기를 의논하니 송무지족왕동희삼산종의십쥬삼도며 봉리방장이잇서스시
로춘경을씩고한서를모르며그중에장성불스약이잇스니먹으면목숨이던디와갓치
무궁하리이다시황왕경이일즉선경을보았는다무귀주왕신의집에흔빙식잇스니성
명은서복이라일즉히도에드러가봉리방장에발조최이니밋천곳이업고선선을만나
란학을타고두루노라범인파다르니이다시황이듯고심하에깃거셔복을불너보고장
성불스할법을무르니서복이되왕불스약구하기는어렵지이니하나히도에드러가
어려우니이다시황왕만일불스약을구하야을친덕경으로더브러흔가지로우화등
선하리니엇지으름답지으니하라서복왕신이가라하면큰비십척에갓석장인이며동
남동녀갓오빅인과금주보피며음식과용지물을정제히흔후에신이비로소형하리이
다시황이견지하야선척을준비하고원갓거슬갓초이니하라서복이비를타고가더니
오리도록음신이업거늘시황이마음에급하야초성으로서복에종적을쳐오라하디
초성이명을바다히변에일으러보리경파는만경이요연무가망々하야서복의종적을
몰을지라찬탄량구에만이성각하되이번형하디빅성을괴로이하야서지물을만
히히비하얏스니만일그저도라갈진티죄척을면치못하리라하고두어종인을다리고
티와산중에드러가선선에조최를츄질시점々형하야동화산절정에일으니흔스람이
봉두구면으로석상에누어이지이니하거늘초성이만이성각하되이놓흔곳에선
선이으니면엇지이곳에잇스리요하고나이가절하니기인이답례하고왕공은하인이

며무슴일이잇셔왔느뇨초성왕나는당금화대의명을바다신셔보고장성불스할약
을잇고조하야왔노라하니기인이대소왕년의임에정하시미잇니큰슈를도망치못
할거시라엇지장성불스하는약을드리요초성이그말이속되거니물보고지삼간
결하니기인이손을드러들을만러쳐척권을너주어왕이는던록셔나가지고가서
시황과흔가지로보라그중의스성존망지슈다잇는나라초성이다시그조셔흔곳을무
른즉기인이눈을감고다시답지이니케늘성이할일업셔도라와시황게고왕동희가망
스무이하야셔서복에종적을찾지못하옵고신이동화산절정에일으러흔이인을 만나
니이런서를주기로감히드리는이다시황이바다괴보니그조이무비런서라엇지이라
보리요리스를명하야보라하니리시슈명하고보더니중간에하얏스되망진조는호애
라하얏거늘시황이대경하야몽업으로하야금인부팔십만을거느리고북으로만리장
성을쓰하북호를막고동으로대회를메고남으로오영을닷으며크게도목지역을일우
허궁실을세우되예제도틀치우고또흔스람에서비가잇슬가지허하야리스의말을조
쳐려디스괴며시셔빅가셔를다모화불스르고또령을나리와우어조를기시하야후성
등륙섬여인을못지르니장조부쇠불가할를간하거늘시황이대로하야북으로목념의
근스를감독하라보니고또동방을순행하니산동은흥년을당흔곳이라빅성이오오하
야편치못하더라시황이흔번나이가디일비슈빅만이요빅성이도망하야크게민심이
단하더라그후에도남순슈하다가스구평년에셔시황이제상을리별하다독조시여

이오리를 크게 하얗고 그흔겨든 초한건곤장 지방실과를 보옵소서
 참이러케 저미답게 잘보시니 곰맘습니다 그러나 이척보담더 저미스런운것슬보시려
 면이척뒤관권장에 기록흔번셔림말침목, 독들을보시고 주문호시면갑슬싸게야속
 사히보너기를자미잇게흔번더려요시말잔흔사주자히화주역이라논척이잇스온뒤
 그니용은옛날당스주의비교할비안니요또보시기미우쉽게야아모라도보시면평
 싱길홍화복을판단하야초년과중년말년사저세상에지니가는형상을오석으로그림
 를그린것시씩신통하고저미잇스오니흔번사다보시기를바라나이다

진시황전종

大正六年十一月廿五日 印刷
 大正六年十一月二十日 發行



진시황전

定價金三十錢

著者 兼池松旭
 發行所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七番地

印刷者 沈禹澤
 印刷所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印刷所 誠文社
 電話六七八番

發行所 新舊書林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七番地

發賣所 博文館
 京城府鍾路二丁目八二番地

振替京城二〇二三番

